



[산업]
현대제철
미래車 소재개발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06

metro[®] 경제

2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126.33 (+0.71)	▲ 코스닥	717.69 (-4.95)
▶ 금리 (연고채 3년)	1.44 (변동없음)	▶ 환율 (원/달러)	1156.50 (-7.50)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metroseoul.co.kr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토종 바이오벤처’ 강스템바이오텍 일냈다

신약3상 완료... 아토피 정복 9부능선 넘었다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퓨어스텝 AD주’ 출시 초읽기
데이터 정리 후 연말 결과 공개
내년 1분기 품목허가 신청 추진
세포치료제 시장 구원투수 기대



강경선 강스템바이오텍 이사회 의장.

토종 바이오벤처가 만든 세계 첫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 탄성이 임박했다.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닌 아토피피부염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첫 줄기세포 치료제여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인보사’로 알려진 국내 유전자·세포치료제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 지에도 기대가 모인다.

◆퓨어스텝AD주 출시 초읽기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20일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텝 AD주’의 국내 임상 3상 시험의 대상자 평가를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퓨어스텝 AD주’는 지난 2017년 12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국내 유력 대형병원 11곳에서 총 197명의 중등도 이상 만성 아토피피부염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다. 줄기세포 치료제로서는 이례적인 규모다.

회사측은 임상결과와 환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9개월 만에 환자투약을 마치고 투약 후 6개월간의 관찰기간까지 총 1년 7개월만에 임상 3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앞으로 2개월 가량 데이터 정리 시간을 거쳐 올해 연말 최종 임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식약처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어서 2020년 내 세계 첫 줄기세포 아토피치료제의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 이태화 대표는 “내년 안에 제품 판매가 이뤄지면 기존 아토피피부염 약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내년 까지 국내 상용화 및 유럽 임상 2상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번 투약으로 3년 효과

퓨어스텝은 완치가 목표인 치료제라는 뜻이다. 기능상 단순 면역억제가 아니라, 면역조절을 주요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해 말 퓨어스텝의 임상 2상 이후 3년간 약효를 장기 추적한 결과 투약 후 3년간 우려할만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치료효과가 동일하게 지속되는 결과를 관찰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제2 윤창호법’ 시행 앞두고 음주단속 강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이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까지 전 경찰관서에서 출근길 숙취 운전자를 점검한다.

/연합뉴스

metro[®] 경제
社 告

푸드테크 혁신시대, 글로벌 푸드 투자전문가 한자리에

풍요로워진 세상과 기술의 발달은 더 맛있고, 안전하고, 보기에 좋은 먹거리를 선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와의 컨버전스는 식품이 문화는 물론 산업과 과학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앞으로 식품은 미래기술(IT, BT, NT)과 만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식품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창조자(Value-Creator)입니다.

2019 Future food-tech Korea는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 방향 및 지속가능한 미래식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장입니다. 미래의 식품 트렌드를 알고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구상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물류, 유통채널, 소셜미디어, 브랜드 및 디자인 확장을 통한 글로벌 방향도 제안합니다. 새로운 식품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는 혁신적 스타트업 인사이트 공유와 식품산업의 성공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모델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19 Future Food-Tech Korea (FFTK 2019)
- 주 제 :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 일 시 : 2019년 7월 11일(목) 14:00~17:00 (한-영 동시통역)
- 장 소 :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 기조강연 : 세스 배넌 글로벌 푸드테크 투자전문기업 ‘Fifty Years’ 창업자
- 세션강연 : 윤효정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플랫폼센터장
신디 오우 듀폰 뉴트리션&바이오사이언스 규제 및 제품관리 총괄본부장
김기봉 글로벌네트워크(미트박스) 대표이사
이윤희 스텝포 창업자&대표

- 문의 및 참가신청 (02)721-9841, 이메일 : forum@metroseoul.com
(02)6020-6833, 이메일 : spring@acres.co.kr
- 참가 등록 : <https://sites.google.com/a/acres.co.kr/fftk2019/>
- 참 가 비 : 11만원(학생은 무료, 단 학생증 지참)
- 주 최 : 메트로미디어
- 주 관 : (주)에이커스

연습생 교육비, 자산으로 똑딱... YG의 회계 매직

YG엔터 회계처리 도마위
연습생 교육비 자산으로
데뷔 못하고 계약 만료 댄
무형자산 당기순손실 처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YG가 연습생과 소속 연예인을 ‘자산’으로 처리해, 대규모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YG 소속 연예인 이탤이 가속화하고 있어서다.

24일 주식시장에서 YG엔터테인먼트

트의 주가는 전일보다 3.25% 내린 2만 82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주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YG 소속 연예인을 향한 대중의 ‘보이콧’이 계속 되면서 소속 연예인의 이탤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유병재, 오상진이 전속계약 만료로 YG를 떠났고, 업계에 따르면 소속 연예인 다수가 다른 기획사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습생들의 데뷔도 불투명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YG의 회계 처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YG는 다른 엔터테인먼트와 달리 연습생 교육비 등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회사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YG가 쌓아놓은 개발비는 25억8000만원이다. 엔터테인먼트사 개발비의 대부분은 연습생 교육 등에 따른 비용이다. 그리고 연습생이 데뷔하면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화된 비용을 줄여나간다.

반면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는 연습생 교육비 등을 무형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모두 털어낸다. JYP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8727만원을 ‘신인개발비’라는 계정으로 비용처리했다. JYP는 매년 수 억 원의 신입 교육비를 손실로 처리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회계 처리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가 문제가 됐듯 엔터테인먼트의 자산화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IFRS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무형자

산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개발을 완료하고 판매·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입수 가능성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연습생 데뷔가 무산되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형자산을 당기순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극단적인 예로 YG 연습생이 모두 데뷔를 못하고 계약을 만료하게 되면 수 십 억원의 개발비가 모조리 손실될 수 있는 것이다. 〈2면에 계속〉

/손범지 기자 sonumji301@